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출타: 전아름(11/11-25) 생일: 이제이슨(11/12)
2. 사무엘 하 성경공부: 친교 후 본당
3. 교회 체리티 등록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4. 리멤버런스데이 한인행사: 11/11 10:30AM Korea War Memorial Stratford Park
5. 신앙도서리더스클럽모임: 11/15 10AM (순전한 기독교)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50
감사 헌금	CD \$85
십일조	CD \$140
장년 출석	13명
어린이 출석	16명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주일 예배 순서

여는기도		인도자
찬 양		다함께
성경봉독	행 19:1-7	인도자
어린이설교	성령이 임하는 교회	김승용 목사
대표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행 3:11:19	인도자
설 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김승용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찬양		다함께
축 도		김승용 목사

(어린이교회) 사도행전 19:1-7

- 1 이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율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 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하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3:11-19

- 11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2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 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3)이 일에 증인이라
- 16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 17 형제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할 줄 아노라
- 18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목회자 칼럼

얼마 전 TV에서 한 부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린 10살의 딸이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에 일찍 철이 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대견함이 아니라 미안함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치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사도들이 행한 첫 기적이라는 점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무력하게 패배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며 앉은뱅이를 고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눈에 ‘이들은 과연 누구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그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느냐?”고 답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지금 한국의 청년들에 대해 자주적인 비유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피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지 못하고 서로 끝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라도 더 남다른 능력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극심한 압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 유능해졌고 많은 것들을 해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완전해지기엔커녕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빨리 철이 들어버린 어린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주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 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이나 슬프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나 늘 우리를 구하지 못하게 속입니다. 지금 기도나 할 때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야말로 가장 큰 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으로 주신 것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두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며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만하다고 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믿음의 주체인 자신을 믿음의 대상 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교만하지만 믿음의 삶은 겸손합니다.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갑시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덮도록 믿음으로 구합시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노라고 선포하는 자들 됩시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예수 가장 높은 이름 예수 가장 강한 능력 X2
그 이름 찬양해 그 능력 찬양해
온 세상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가장 높은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높여 찬양하리